

# 광산구 '광주 미래혁신성장' 중심지로 부상

## 어등산 관광단지 복합쇼핑몰 이어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광산구가 광주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빛그린산단 인근 광산구 삼도·분랑이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부지로 확정되면서 지역경제 도약의 획기적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22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포함됐다. 2009년 9월 빛그린국가산단 지정 이후 14년 만에 광주시가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새로운 산단은 빛그린산단 인근 광산구 삼도동과 분랑동 일대 100만 평(330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곳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배터리 등 미래차 산업의 모든 것을 집적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주는 연간 72만 대 생산규모를 자랑하는 자동차 산업도시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23년 만에 국내에 새로운 완성차 공장을 세우며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통한 일자리 개척의 바람을 일으킨 진원지기도 하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광주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 미래차 국가산단이 광산구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광주 미래산업 발전의 요충지로서 미래차 국가산단이 광산구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미래차 국가산단을 신속하게 조성, 기존 빛그린산단 및 진곡산단과 연계하고 연관 산업들을 융합해 '미래차 산업 밸류체인'을 형성,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 대표 산업단지 5곳과 2900여 개 기업체가 밀집한 광산구가 광주 산업발전의 핵심 요충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가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기지'를 품고, 광주 미래 혁신산업의 거점으로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대한민국 제1의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라는 광주의 새로운 미래가 광산구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이 극적인 법적 분쟁 해소와 (주)신세계프라퍼티의 적극적인 복합 쇼핑몰 추진 의사 등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로 광산지역 경제산업 활성화도 더욱 탄력을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과 분랑동 일대에 들어설 미래차 국가산단 부지 전경.

특히 민선 8기 광산구가 '광주형 일자리 시조'로 추진하는 지속가능성 경제특구, 일터혁신 등 일자리, 경제 정책과의 연계·시너지 효과 등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구청장은 "진곡산단 등 산업 인프라, 지역의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광산구도 함께 하겠다"며 "미래차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 협

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광주시가 제3차 공모로 추진하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광주 미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광주시, 시민사회, 기업 등과 힘을 모으겠다"며 "시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공공갈등조정기' 양성 시민 20명 선발, 7월까지 교육

광주 광산구가 지역 내 다양한 공공갈등을 소통과 공감으로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갈등조정기' 육성에 나섰다.

공공갈등조정기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찬반 대립, 의견 차이, 이해충돌 등과 같은 공공갈등 발생 시 쟁점을 분석하고, 이해주체 간 원활한 대화와 협상을 유도해 사회적 합의와 조정을 끌어내는 전문가다.

광산구는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갈등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응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동체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는 데 앞장설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갈등조정기를 양성하기로 했다. 기존 협치 퍼실리테이터(촉진자)를 포함해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기본, 심화, 고급과정 3단계로 양성교육을 추진한다.

광산구는 교육 수료생에게는 실제 공공갈등 현장 및 공론장에서 토론회에 참여하고 중재조정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새롭게 시도하는 광산형 공론활동, '광산공론PUNDA(펀다)'와 연계해 공공갈등조정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을 튼튼히 하고, 지역발전의 앞당기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공공갈등조정 전문가 양성을 통해 어떠한 갈등도 상생으로 풀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탄소중립 광산 마중물, 1만 여 상생·희망나무 심어



광주 광산구는 지난 21일 시민 1000여 명과 함께 '2023년 상생, 희망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 쌍암공원 등 5곳서 나무심기

광주 광산구는 지난 21일 시민 1000여 명과 함께 탄소중립 광산의 마중물이 될 상생 희망 나무 1만여 주를 심고, 기후변화 대응을 다짐했다.

광산구는 이날 쌍암공원, 월전공원, 장덕공원, 월곡공원, 하남3지구 녹지 5개소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2023년 상생, 희망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공, 민간, 기업, 단체 등에서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팝나무, 목련, 철쭉 등을 1만여주를 식재했다.

광산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시민참여 나무

심기, 생활권 도시숲 확충, 가로공간 정밀조성, 민간주도 나무심기 등 '시민과 함께 나무심고 가구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기후위기 대응, 자연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광산을 목표로 2026년까지 '2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식재한 1만여 그루의 나무는 아름다운 광산, 쾌적한 환경에 대한 많은 시민의 염원을 담은 탄소중립 광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온전한 자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사각지대 없는 통합돌봄서비스망 구축



박병규(앞줄 가운데) 광산구청장은 지난 20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광주+ 광산형 통합돌봄사업' 관련 8개 제공기관, 3개 협력기관 대표들과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11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 광산구가 지역 11개 기관과 사각지대 없는 '광산형 통합돌봄서비스망' 구축에 나섰다.

광산구는 지난 20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광주+ 광산형 통합돌봄사업' 첫 출발로 8개 제공기관 및 3개 협력기관과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공기관으로는 ▲광산구종합재가센터(센터장 나보경) ▲어등지역자활센터(센터장 심현) ▲광산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진성) ▲건강발상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영숙)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박병기) ▲한국노인장기요양

기관협회 광산지회(지회장 서경자)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재진) ▲하남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재중)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광주+ 광산형 통합돌봄사업 7대 서비스(가사, 식사, 동행, 건강, 안전, 주거, 일시보호)와 광산구가 특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강약자 병원동행 '휴블런스', 방문구강, 간호지원, 마을밥카페, 서비스 채움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주)대웅에스앤디 등 3곳은 협력기관으로서 휴블런스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안심홈세트' 지원

### 여성 1인 가구·모자가족 대상

광주 광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의 범죄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가구와 법정합부모가족(모자가족)에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산구민으로, 개인용 무선인터넷(wifi, 와이파이)이 설치된 가구여야 한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동행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추천자를 우선 선정하며, 자가 및 아파트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현관문 앞 울타리를 감지하고 자동 녹화해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한 스마트 초인종과 도어락 등 이중 잠금 안정장치인 현관문 보조기, 외부에서 문(창문)열림이 감지되면 연동된 스마트폰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문 열림 센서, 외부에서 강제로 창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창문 잠금장치로 구성된 4종 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여성들의 주거 불안감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여성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 목 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 목 장 의 장 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